AKCCME 제 243호

2026년 1월 25일(가해)

아켐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연중 제 3 주일
(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마태 4,13-14 참조)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김대순 가브리엘 (+971 56 480 7672)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 무 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 바 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루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 웨 이 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 타 르** 묵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연중 제3주일이고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며,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이 겨울에 많은 사람이 가난과 추위와 고독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늘 나라의 도래는 구원 약속의 성취를 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 사업에 작은 도구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빛을 전하는 노력을 하기로 다짐하여 미사에 참여합시다.

- **입당송** 시편 96(95),1.6

- **제1독서**
  이사 8,23ㄷ—9,3

- **화답송** 시편 27(26),1.4.13-14(◎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2독서**
  1코린 1,10-13.17

- **복음환호송** 마태 4.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 **복음**
  마태 4,12-23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을 되새기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주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기도드리며 그 말씀이 삶의 양식이며 희망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해외 원조 주일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인류의 공동선을 이루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에게 당신의 사랑을 더해 주시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참기쁨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영성체송**
  시편 34(33),6 참조

[아켐] 2026년 아켐 총회

지난 1월 20일 화요일,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남녀 대표들이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동체의 계획과 과제를 점검하고, 아켐의 방향성과 재정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2026년 아켐 회장으로 아부다비 공동체의 **'김대순 가브리엘'** 형제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2년 동안 아켐 회장으로 수고해 주신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두 형제님께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켐 카페(http://cafe.daum.net/akccme)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부다비] 공동체 가족 운동회

- 일　　시 : 1 월 24 일 (토), 14 시 30 분
- 장　　소 : Al Ghazal 축구장
- 준 비 물 : 편한 복장, 운동화, 즐거운 마음

※ 공동체 가족이 주님 안에서 친교를 이루고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작은형제회] 새 관구봉사자와 행정진 선출 완료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관구회의를 하고 있는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에서는 회의 둘째 날에 선거를 통해 새 관구봉사자와 행정진을 선출하였습니다. 신임 관구봉사자로 '김일득 모세' 신부님께서 선출되셨고, 앞으로 6년 동안 작은형제회 한국관구를 대표해 봉사하시게 됩니다. 모세 신부님은 제 2대 아켐 전담 사제로 소임을 맡아 주신 바 있습니다. 신임 관구봉사자와 행정진 신부님/수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종 레오 14세] 1월 기도 지향

1월: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의 원천이 되어, 더욱 형제애 넘치고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26 아켐 사목 표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

Take Joy

'Together'

in Praying

시간을 내어 기회를 만들어 서로 자주 모이며 친교를 이루는 것이 작년에 아켐 공동체의 나아가는 바였다면, 올해에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나가실 그분의 '뜻'에 더 일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켐의 각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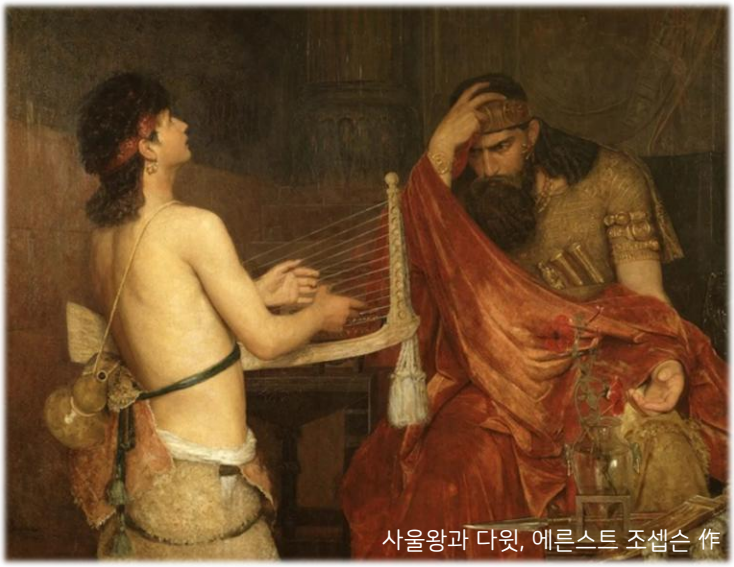
우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마태 18,19)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시편 34,16).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야고 5,16).

기도의 중요함을 막연히 알고 있지만 그저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기도의 소중함을 몸소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아켐 온라인 기도 모임

- 기　간 : 1월 28일 (수) ~ 12월 30일 (수), 매주 수요일 21시 (UAE 기준)
- 참 석 대 상 : 아켐 공동체 내의 모든 교우
- 기도 모임은 공동체별로 한 주씩 돌아가며 이끌어 가고, 아켐 공동체 및 각 공동체의 기도 지향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아켐 전담사제 김 성 인 미카엘 ofm.


사울왕과 다윗, 에른스트 조셉슨 作

WHO? Who?
In the BIBLE
'성경' 속 인물 이야기

민심을 잃고 몰락한 이스라엘의

사울 왕

1939년 독일의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폴란드를 완전히 장악한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에 평화회의를 제의했다. 영국과 프랑스가 거부하자 독일은 프랑스 파리까지 단번에 진격했다. 이제 마지막 영국만이 남았다. 영국을 향한 공격이 계속됐기 때문에 영국 국민은 대단히 불안했다. 평화 협상을 제의하는 국민들도 많았다. 말이 평화 협상이지 독일에 점령당하는 것이었다.

이때 영국은 처칠을 수상의 자리에 앉히고 전시 내각을 구성했다. 처칠은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내가 영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노력과 땀과 눈물뿐입니다. 나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또한 하느님의 도움에 의지하여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마지막 목적은 단 한 가지, 승리입니다"라고 역설했다. 처칠은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치는 민심이 떠나면 민심은 모래처럼 흩어지고 힘이 분산되어 전쟁에서는 백전백패한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뽑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할 수 있겠어?'하며 얕잡아 보고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사울은 처음에는 큰 포용력을 가지고 자신의 정적들을 감싸 안았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책봉된 사울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고 백성들은 사울을 하느님이 보내주신 임금으로 섬겼다.

사울이 왕에 오른 지 2년이 지나 필리스티나와 전쟁을 벌였다. 아군의 군대는 적군의 위세에 눌려 모두 떨고 있었고 병사들도 하나둘씩 도망쳤다.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지냈다. 그때 바로 사무엘이 나타나 하느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을 백성들 앞에서 추궁했다. 사울은 전쟁에서는 다행히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전폭적인 존경을 받던 예언자 사무엘의 추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는 큰 결함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사울은 후에도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전승비를 세우는 것에 더 신경을 썼다. 결국 하느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리겠다고 최후통첩을 한다. 하느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은 더욱 궁지로 몰렸는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한 것이었다. 사울은 다윗을 노골적으로 질투하고 시기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떠나고, 가족들의 냉대를 받고, 스승 사무엘에게도 버림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사울은 왕의 자리는 차지하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꼽는 영웅이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놓쳐버린 실패한 군주였다. 능력이 출중한 장수였던 사울왕이 권력을 잡은 후 교만해져 민심을 잃고 하느님의 징벌을 당했다, 추락하는 그의 삶은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큰 교훈을 안겨준다. 지도자의 가장 큰 힘은 민심이다.

- 허영업 마티아 신부의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바치는 기도

○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 예수님,
지난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저희가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새해에는 나쁜습관을 버리고
맡은 책임을 다하여
가정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 또한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주소서.

◎ 아멘.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서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 아멘.

아켐 2026년 각 공동체 봉사자

구 분		봉사 직책			이 름
아 켐		회 장			김대순 가브리엘
		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UAE		사목회장			김대순 가브리엘
	아부다비	여성	총구역장		채규인 보나
			총 무		이경임 리디아
			림	구역장	안소항 모니카
				총 무	박여름 사비나
			라하	구역장	김명선 로사(상반기)
					박세원 마르타(하반기)
		남성	구 역 장		백인혁 필립보
			총 무		황태희 안드레아
		전례	부 장		전해경 린다
			복사단장		오윤경 테오도라
			성가단장		박세원 마르타
			지 휘 자		진형관 요셉
		재정 부장			김유정 마리아 막달레나
		주일 학교			김영글 소화 데레사(교감)
					권정홍 모세
					백소현 챌리나
		본당 코디네이터			김대순 가브리엘
					백인혁 필립보
	두바이	공동체 회장			문호림 대건 안드레아
		공동체 총무			이동성 삼손
		공동체 회계			김소정 아녜스
		본당 코디네이터			이지현 아녜스
		여성	총구역장		장지현 젬마
			1 구역	구역장	윤인숙 모니카
			2구역	구역장	박수경 마르가르타
				반 장	이지현 아녜스
			3 구역	구역장	오명주 사베리아
				반 장	이상혜 비비안나
			4 구역	구역장	양소영 레지나
				반 장	성명희 플로라
		남성 구역장			박진호 미카엘
		홍보 분과장			김정현 피터
		전례	분 과 장		정혜욱 아녜스
			복사단장		진정희 마리아
			성가단장		정도영 가브리엘
		교육	주일학교		윤민정 세실리아(교감)
					최수민 로사
		청년 분과장			최은정 셀레나
	루와이스	대 표			김이현 레오
		총 무			박인선 실비아

구 분	봉사 직책		이 름
카 타 르	사목회장		김현진 마리스텔라
	총 무		김국희 세실리아
	회 계		도주현 테오도라
	여성 분과(성모 회장)		정글라라 글라라
	전례 부장		이지영 마리보나
	성가 단장		진분홍 세실리아
쿠웨이트	사목회장		이규영 안드레아(상반기)
			황태원 토마스 아퀴나스(하반기)
	총무/재정 위원장		김덕문 유스티노
	감 사		남국영 히지노
	여성	구역장	천혜림 젬마(상반기)
			서동숙 베로니카(하반기)
		총 무	김세미 율리아
	전례	부 장	김덕문 유스티노
		복사단장	윤재이 파비올라
	교육 분과		오은총 크리스티나
이란 테헤란	회 장		최정아 마리아 막달레나
	총 무		소효주 마리아
이집트 카이로	사목회장		박용주 바오로
	총 무		하승민 아녜스
	마리아회 총무		정희주 소피아
모 로 코	공동체 대표		김유진 이레네

우리가 늘 말하는 **일치**

내 발걸음만 봐서는

절대 일치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걸음을

볼 줄 아는 이들만

일치를 이룬다.

(글, 그림 by 조재형 안드레아 신부)

아켐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켐 기금은 아켐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뱅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 R A K 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GULF KOREAN TIMES 걸프 코리안 타임즈
• 중동 대표 한인 교민 신문
• 소셜 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홍보 & 마케팅 기회 제공
• 외국 커뮤니티와의 협력, 유대 기회
정미숙 라파엘라 (광고 문의)
(+971) 50 461 3991 / : @gktmedia